

달성상공회의소대구통합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1
----------	---

제출년월일 : 2003. 1.23.
발의자 : 이근선 의원
외 3인

1. 제안이유

- 논공읍 달성공단내 위치한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상공회의소로 통합코자 하는 바, 이는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을 올 수 있어 통합반대를 결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건의내용

-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도에 설립인가 되어 현재 416개 법인 회원과 333개 개인업체 회원이 가입 운영 되어온 상공인 단체로서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굳건히 다져오며,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 왔는바,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상공회의소 통합에 반대를 건의.

붙임 : 달성상공회의소대구통합반대결의안 1부. 끝.

달성상공회의소대구통합반대결의

미래 과학기술의 중추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성군 전 군민들은 대구의 낙동강 시대를 활짝 펼쳐나갈 주역으로서 지방화시대 유품대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기대에 부풀었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비롯한 지역개발계획들은 제반 여건에 얹매여 장기간 표류되어 왔으며, 각종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군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대구광역시 편입후 기대적 실망과 상실감이 상존해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상공회의소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을 추진하면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존의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도에 설립인가 되어 현재 416개 법인회원과 333개 개인업체 회원이 가입 운영 되어온 상공인 단체로서,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굳건히 다져오며,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군단위 상공인 단체로서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과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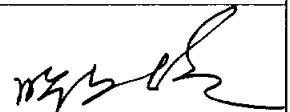
달성군 주민들은 달성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바, 대구상공회의소의 통합추진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편입후 8년 동안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존해 온 점에서 군민들은 또다른 상실감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활동에 제약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성상공회의소는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결의 합니다.

2003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이근선	이근선	
박노설	박노설	
김삼도	김삼도	
유판호		